투데이 칼럼

스피치의 감각기법

김 양 옥

우석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라커는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것을 듣는 것이다"라고 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혼자 청산유수처럼 말 잘함 보다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할 때 진가는 드러나는 것이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사람과 사람의 정보와 생각, 감정, 욕구가 교환되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할 때 특(1인)실보다 일반실이 더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위급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혼자 누워있는 경우보다 일반실에서 환자들과 이야기 나누며 치료받는 것이 더 좋아서이다.

병실도 벽쪽보다 창문이 있는 쪽이 더 좋고 병원이나 요양원 환자들도 보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것, 신나는 것, 관련 있는 자들의 단합하는 것 등을 보면 병도 잘 치료되고 좋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혼자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늘 누군가와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는 노년기를 보낼 때도 독거노인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생활을 하도록 경노당, 마을회관, 요양원 등에서 소통과 관계를 하며 살아가도록 한다.

그리고, 어울리고 관계를 맺으며 지낼 때 상대의 욕구를 파악하여 말로 기분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기분을 잘 맞추며 말을 할 때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정확히 하지만 상대가 언짢은 말은 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생각, 기분, 욕구, 주변상황까지 관찰 분석하여 말하는 특별한 감각이 필요하다.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와 대니 사이먼스가 정의한 '무주의 맹시'라는 현상이 있다.

이 현상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싶은 것에만 집중 하느라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두 학자는 사람들에게 검은 셔츠를 입은 팀과 흰 셔츠를 입은 팀 중에서 흰 셔츠를 입은 팀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수를 맞추라는 실험을 하였는데 공 패스 수를 맞추었지만 그 실험중에 나타난 고릴라를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50% 이상이 답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무주의 맹시' 현상은 말을 할때도 나타나는데 말을 시간내에 실수 없이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준비한 내용에만 집중하느라 흥미를 잃고있는 상대들의 생각, 표정을 살피지 못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을할 때 상황을 관찰하면서 실행하면 이야기 흐름을 좋게 바꿀수 있다.

말을 할 때 앵무새처럼 말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말의 환경에서 능수능란하게 말을 해 보면 유익하고 정확한 스피치가 되는 것이다.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의 주장의 말만 하는것이 아니라 함께 말을 잘 나누는 사람이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다.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생기는 갈등을 말로 해결해 보자.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기 전 한 번 더 분석하고 생각하여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현대인의 자질을 높여 가 보자.

말은 유창함보다도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에서 통하기 시작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갈등도 예방되고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도 서로 통하는 말로 스피치의 달인이 된다면 인생의 역경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공동 수색하는 미얀마-베트남 구조대

3일(현지 시간) 미얀마 네피도에서 미얀마와 베트남 구조대가 지진 피해 건물 내부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린란드 최대 경제 단체 방문한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왼쪽) 덴마크 총리와 옌스 프레데릭 닐센 그린란드 총리가 2일(현지 시간) 그린란드 누크에서 그린란드 최대 경제 단체 '그린란드 비즈니스'를 방문해 담소하고 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그린란드 관리들과의 신뢰와 협력 구축을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그린란드를 찾았다.

사 설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진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과태료 10만엔 납부 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가 법원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 뒤 가정연합은 '나쁜 종교단체'로 여론재판을 받고 있다. 신도들에게 가해진 심각한 2차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 내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청년도 있다.

가정연합 피해자 모임에서 확인한 자살 사례만 4명이다.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한 일본인 청년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붙잡혔으나,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정식 재판은 시작되지 않고 있다.

공판 준비 절차만 5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재판의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이나 진실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가정연합에 대한 반감이 범행 동기라는 경찰 조사 과정 중에 제보를 근거로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 종교법인을 해산해야 한다는 일본 내 움직임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 가정연합은 1964년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승인받은 이후 6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일본 법률을 준수하며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위한 선교 활동과 함께 한·일 우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단 한 건의 형사사건에도 연루된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자격을 취소하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다. 가정연합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다. 가정연합과는 무관한 테러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이다.

문인 신영규의 '바람도 꽃피는 계절이 있다'

임실 출신 신영규 작가가 첫 시집 '바람도 꽃피는 계절이 있다'를 냈다. 시집은 제1부 '바람도 꽃피는 계절이 있다' 제2부 '서러운 밤' 제3부 '노을빛 사랑' 제4부 '고독한 새가 되어' 제5부 '추색(秋色)의 등 뒤에서' 제6부 '그리움은 시가 되고'로 편집했다.

그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은 '인문학을 생활로 구현한 작가'라고 말한다. 수필 문학을 통해서 생활의 잔잔한 일상에 이야기를 입혀온 정성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의 정신과 정성의 바탕에는 문학성을 이루는 서정이 오롯이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저술들에 드러난 서정은 강직하고, 또한 온유하다. 섬세한 서정성이 그의 속내였음을 짐작하게 한다는 평이다. 그는 올해로 등단 30년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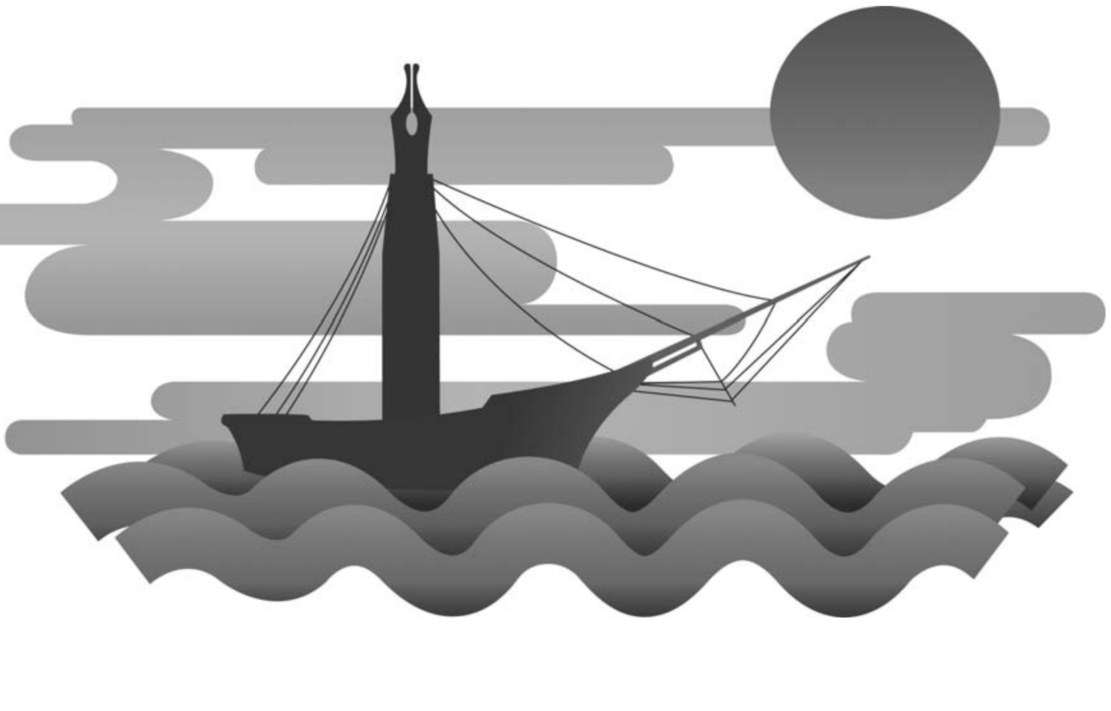
좋은 글을 쓰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영규 작가는 지난 수십 년간 수필과 칼럼만 써왔는데 어느 때부턴가 틈틈이 시를 써왔다.

모아온 시를 버리자니 아까워서 오래된 시는 다시 현실에 맞게 고쳐서 이번에 첫 시집을 냈다고 한다. 시집엔 자연을 노래하는 시들도 있지만 주로 철학적인 시, 인생을 거론한 시들이 많다.

한편, 신영규 작가는 1995년 월간 '문예사조', 1997년 월간' 수필과비평'을 통해 등단했다. 국제PEN전북지역위원회,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전주문인협회, 전북수비문학, 전북수필문학회, 한국미래문화연구원, 한국신문학인협회, 임실문인협회, 전북불교문학회 회원을 역임했다. 현재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순수필동인 회장을 맡고 있다. 수필집' 숲에서 만난 비'' 그리움처럼 고독이 오는 날', 시집 '바람도 꽃피는 계절이 있다', 칼럼집 '오프사이드 인생' 등을 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